

2024. 1. 25(목). 10:00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안건명 〉

남양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시교통위원회
전 문 위 원

남양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이진환 의원 등 11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2024년 0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도로의 신설·보수·굴착·교통시설물 설치 및 인·허가 시, 사전에 공사 구간, 시행자, 시행 기간 및 주요 내용을 고지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 나. 사전예고 적용 범위, 대상, 사항 및 방법을 규정함. (안 제3조~ 제6조)
- 다. 의견제출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제8조)

4. 참고사항

- 가. 도로공사(개설·보수) 건수 및 민원 접수 건수 : 붙임1
- 나. 도로공사 중 교통사고 수 및 사망 비율 : 붙임2

다. 관련 기사 : 붙임3

라. 위험도로예보시스템(남양주시) : 붙임4

마. 입법예고 결과('24.1.16~1.22.)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21년~23년 시행한 도로 개설공사(민원발생 건)는 29건(1,836건)이며, 보수공사(민원발생 건)는 3,990건(12,511건)으로 도로 개설·보수 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음. 도로공사 중 사고가 발생 시 일반교통사고보다 사망률이 특히 높은것으로 조사되며 뿐만 아니라 위험도로예상시스템(남양주시) 검색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도로가 안전하지만 도로 보수가 필요한, 이동이 많은 도로는 심각·위험으로 분석됨.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위험요소로 부터 발생할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본 조례는 도로 공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시민에게 제공하여 남양주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정체를 감소와 시민의 불편함을 감소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도로 공사(보수) 건수 및 민원 접수 건수

1 도로공사(개설) 건수 및 관련 민원접수 건수 현황 - 도로건설과

- 도로 공사(개설) 건수 : 총 29건 (2021년~2023년)
- 도로 공사(보수) 관련 민원접수 건수 (총 1,836건)
 - 2021년 : 1,120건
 - 2022년 : 293건
 - 2023년 : 423건

2 도로공사(보수) 건수 및 관련 민원접수 건수 현황 - 도로관리과

- 도로 공사(보수) 건수 : 3,990건 (2021년~2023년) 자전거도로 포함.
(단위:건)

구분	노면 재포장	인도 정비	응급복구	자전거 도로 보수	자전거 도로 개설	총건수
2021년	38	66	1,049	253	0	1,406
2022년	49	105	913	166	1*	1,234
2023년	32	51	1,094	172	1**	1,350

* (2022년 자전거도로 개설) 수석동 왕숙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설공사

** (2023년 자전거도로 개설) 별내역 주변 하천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 도로 공사(보수)와 관련 된 민원접수 건수 : 12,511건

- 국민신문고 접수(총 6,768): 21년 2,778건 / 22년 1,726건 / 23년 2,264건
- 민원콜센터 접수(총 5,745): 21년 1,712건 / 22년 1,777건 / 23년 2,256건

붙임2

도로공사 중 교통사고 수 및 사망 비율

출처 :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3115524099609>

도로공사 중 교통사고 수 및 사망 비율 (단위: 명)



전체 교통사고 수 및 사망 비율 (단위: 명)



*자료: 경찰청

도로 공사 중 '차 대 사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 교통사고보다 특히 사망률이 높다. 지난해 도로 공사 중 차에 치인 피해자는 총 101명인데 이 중 4.9%인 5명이 사망했다. 전체 차 대 사람 사고에서 사망률이 3% 남짓인 것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다.

도로 공사현장 교통사고 관리 행정청도 과실책임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지법, 남제주군 30% 배상판결

행정기관이 발주한 도로 공사에서 공사업체가 도로의 절반을 점유해 공사를 벌이던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 유지.관리기관인 행정기관도 일정 정도의 과실책임을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3월 15일 오후 5시30분께 피고(남제주군)가 발주한 남원읍 위미리 소재 도로 옆 하수구 공사 및 인도 보수 공사에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포클레인으로 편도 1차선을 점거하고 공사를 하던 도중 마침 이곳을 지나가는 화물차량과 마주오던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고가 일어났다면 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피고로서도 차량 통행을 원만히 진행시켜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공사는 하도급업체에서 했지만 피고는 도로 유지.관리청으로서 또한 사업시행자로서 안전표지판 및 안전통제 요원을 두지 않아 원활한 차량 소통에 지장을 준 책임이 있는 만큼 청구금액의 30%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고를 낸 가해 차량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를 축소시킬 수 있었던만큼 70%의 과실책임을 있다” 고 판시했다.

사전 안내없는 도로공사로 출근시간대 정체 · 사고위험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5830>

제대로된 사전 안내없이 도로 보수 · 정비 공사가 이뤄져 출근 시간대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27일 출근시간대 강남로~번영교 방면 3차선 도로 위로 차량 경적 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이곳 3차선 도로 중 유일하게 번영교로 통하는 우회전 차선을 통제하면서 울산시가 현장 200여m 일원에만 ‘공사중’, ‘우회’와 같은 안내판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오모(28 · 남구 삼산동)씨는 “우회전으로 빠져야 하는 곳에서 우회 안내를 해둔 탓에 갑자기 차량들이 2차선으로 몰려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며 “일부 차량은 정체 구간에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가 발생할 뻔한 순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곳 도로는 통행량이 많은데다 올해 유독 비가 자주오면서 약해진 아스팔트가 차량의 하중을 견디기 어려워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 26일부터 이 일대에서 도로 보수 공사가 진행됐다.

비슷한 시간, 삼호교 일원도 화단 정비 작업으로 교량 중간에서 1차선 일부가 통제돼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같은 시간대 삼호교~다운동 방면 좌회전 구간도 전기 공사로 일부 구간이 막히기도 했다.

A씨는 “출근길에 공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차량들이 급정거하거나,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등 너무 위험했다”며 “사전 안내 등이 없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해당 도로 일원에 긴급 보수만 해오다가 도로 패임 정도가 점차 심해져 차량 통행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며 “현장 공사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면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아 추후에라도 비슷한 일 발생하지 않도록 전달해두겠다”고 밝혔다.

위험도로예보시스템

